

류현진, 4이닝 노히트...“무릎 부상은 단순 타박상”

14개월 만에 복귀 두 번째 선발 타구에 오른쪽 무릎 맞고 강판 “부기 생겨 문제 있는 것 아니다”

왼쪽 팔꿈치를 수술하고 14개월 만에 돌아온 ‘코리안 몬스터’ 류현진(36·토론토 블루제이스)이 복귀 두 번째 선발 등판 경기에서 타자가 친 공에 오른쪽 무릎 안쪽을 정통으로 맞고 조기 강판했다.

류현진은 8일 열린 2023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클리블랜드 가디언스와 방문 경기에 선발 등판해 교체되기 전까지 4이닝 무피안타 1볼넷 2탈삼진 무실점으로 잘 던졌다.

류현진은 0-0으로 맞선 4회말 2사 1루에서 예상치 못한 악재와 마주했다.

오스카 곤살레스에게 던진 초구 바깥쪽 체인지업이 류현진을 향했다. 류현진이 수비 자세를 취하기 전 그의 오른쪽 무릎 안쪽을 정통으로 강타했다.

류현진은 무릎을 맞고 옆으로 굴러간 공을 잡아 1루로 송구해 곤살레스를 잡았다. 그러나 류현진은 그대로 고꾸라져 한참 동안 고통을 호소했다.

류현진은 존 슈나이더 토론토 감독의 부축을 받고 절뚝거리며 더그아웃으로 들어갔고, 5회말에 볼펜 투수 제이 잭슨으로 교체됐다.

다행히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토론토 구단은 “오른쪽 무릎 타박상”이라며 “엑스레이 등 검진 예정”이라고 전했다. 뼈, 인대 등이 손상되지 않았다면 회복 과정을 거쳐 곧 복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류현진은 강판 전까지 완벽한 모습을 펼쳤다.

그는 1회 선두 타자 스티븐 칸을 2구 만에 1루 땅볼로 잡았다. 후속 타자 안드레스 히메네스 또한 유

격수 땅볼로 처리하며 호투를 이어갔다.

호세 라미레스에게 볼 3개를 연달아 내주고도 고도의 집중력으로 풀카운트 승부를 끌어낸 뒤 컷패 스트로로 투수 앞 땅볼을 유도했다.

류현진은 자신에게 날아온 타구를 잘 잡아 직접 처리했다.

2회도 삼자범퇴로 막았다. 그는 곤살레스와 콜켈혼을 각각 우익수 뜬공, 좌익수 뜬 공으로 처리했고, 우타자 가브리엘 아리아스를 헛스윙 삼진으로 돌려세웠다.

1회에서 체인지업 3개를 내리던져 헛스윙 3개를 끌어내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3회는 ‘송곳 제구력’과 ‘시속 100km대 느린 커브’를 도구 삼아 클리블랜드 타선을 요리했다.

류현진은 선두 타자 브라이언 로기올 상대로 볼카운트 2볼 2스트라이크에서 스트라이크 존 뭉뚱쪽 낮은 곳에 절묘하게 들어가는 직구를 던져 삼진 처리했다. 이후 마일스 스트로를 우익수 뜬공으로 막았다.

간단하게 두 타자를 처리한 류현진은 보 네일러를 2루 땅볼로 처리했다.

무결점 투구를 이어가던 류현진은 4회 1사에서 히메네스에게 볼넷을 허용해 처음으로 주자를 내보냈지만 크게 흔들리지는 않았다. 라미레스를 우익수 뜬 공으로 잡으며 호투를 이어갔다.

문제는 2사 1루 후속 곤살레스 타석 때 발생했다. 류현진은 볼의 부상으로 더는 공을 던지지 못했다.

이날 류현진은 직구 26개, 체인지업 11개, 커브 10개, 컷 패스트볼 5개 등 총 52개의 공을 던졌다.

직구 최고 구속은 시속 90.7마일(146km), 평균 구속은 시속 88.8마일(143km)이었다.

류현진은 MLB 개인 통산 900탈삼진을 돌파하기도 했다.

/연합뉴스



토론토 블루제이스 류현진이 7일(현지시각) 미국 오하이오주 클리블랜드 프로그레시브 필드에서 열린 2023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클리블랜드 가디언스와 방문 경기 4회에서 타구에 맞고 고통스러워하고 있다. 류현진은 이날 4회 말 2사 1루에서 오스카 곤살레스의 강습타구에 오른쪽 다리를 맞은 뒤 고통을 참아가며 굴절된 공을 잡아 1루로 던져 이닝의 마지막 아웃카운트를 채웠다. /연합뉴스

산체스의 고민 정타와 투구폼

구종의 다양화·전제구 동작 수정 필요



강렬한 출발을 했던 마리오 산체스가 정타와 투구폼 두 가지 고민에 빠졌다.

아도니스 메디나를 대신해 KIA 유니폼을 입은 산체스는 지난 7월 9일 KT와의 원정경기를 통해 KBO 데뷔전을 치렀다. 이날 6.1이닝을 소화한 산체스는 5피안타(1피홈런) 1실점의 호투로 첫 등판에서 승리를 챙겼다.

위력적이면서도 정교한 변화구로 10개의 탈삼진도 뽑아내면서 강렬한 데뷔전을 치렀다. 외국인 선수들의 부진으로 고민했던 KIA의 순위 싸움에 큰 힘이 되는 것 같았지만 최근 결과가 좋지 못했다.

산체스는 지난 1일 삼성 원정에서 4이닝 10피안타 1볼넷 4탈삼진 7실점으로 부진했다. 이날 타자들이 0-6의 점수차를 11-8로 뒤집으면서 산체스의 패배를 지워줬다.

이어 6일 한화전에서 산체스는 5회도 채우지 못했다. 4.1이닝 5피안타(1피홈런) 4볼넷 6탈삼진 4실점. 이날 팀은 4시간 57분의 연장 혈투 끝에 4-4 무승부를 기록하면서 이번에도 산체스의 패배는 기록되지 않았다.

변화무쌍한 변화구에 비해 직구의 힘이 떨어지는 게 아쉽다.

김중국 감독은 “첫 두 경기는 잘 던졌는데 정타들이 높아서 본인도 당황스러웠을 것이다”며 “커맨드에 더 집중하고 구종 다양화하면서 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 본인도 공감하고 있어서 자신 있어 하는 구종 외에도 투구를 하면서 바꿔야 할 것 같다. 전력 분석 코치들도 신경 쓰고 있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산체스를 괴롭히는 또 다른 문제가 있다. 바로 ‘투구폼’이다.

산체스는 첫 경기에서 탈삼진 능력과 함께 또 다른 부분에서 시선을 끌었다. 독특한 이중 킥과 견제 동작으로 사람들의 시선을 끌었고, 상대의 어필도 받았다. 심판진의 지적도 나오면서 첫 등판과 함께 산체스는 ‘변화’의 시간을 보냈다.

첫 등판 이후 산체스는 취재진과의 자리에서 “(심판진으로부터) 이중킥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동일한 투구폼을 가져야 한다고 들었다. 이중킥을 하고 싶으면 처음부터 하고, 변화를 주면 위반이 된다는 설명이었다. 오래전부터 사용했던 동작이라 사용하지 못하게 됐을 때 어떻게 피칭 스타일이 바뀔지 모르겠다.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았으면 한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그의 바람과 달리 투구폼의 영향을 받고 있다. 일단 첫 등판이었던 7월 9일 KT전에서 최수원 심판조에 이중 킥 견제 동작에 대한 지적을 받으면서 폼을 수정했다. 이때 견제 동작에 대한 문제는 없었다.

하지만 삼성과의 홈 시리즈가 진행되던 7월 11일 박종철 심판조에게 견제 동작에 대한 안내를 받았다. 왼쪽 어깨를 담은 상황에서 갑자기 견제를 하면 주자에 대한 기망 행위로 보크가 될 수 있다는 설명이었다.

이어 7월 26일 NC전에서는 별다른 지적은 없었지만 8월 1일 포항 삼성전에서 다시 한번 최수원 심판조의 언급이 있었다.

산체스는 이날 어깨를 오픈했다가 바로 변칙으로 견제구를 던지면 보크가 된다는 사전 경고를 받았다. 산체스 특유의 시그니처 견제 포즈에서 바로 견제를 하면 보크를 주겠다는 것이었다.

또 한번의 지적이 있었고, 6일 한화전에서 산체스의 혼란이 가중됐다. 박종



산체스

철 심판조가 진행을 맡았던 이날 앞서 포항에서 지적을 당했던 견제 동작이 나왔다.

하지만 이때 심판진은 경기 도중 보크를 선언하지 않았다가, 경기 후 이 부분을 언급한 것이다.

심판진마다 다른 이야기가 산체스의 경기력에도 영향을 미치면서 결국 심재학 단장이 직접 나섰다.

심 단장은 8일 LG와의 경기 전 취재진을 만나 “마이너리그와 대만 리그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KBO리그에 맞춰야 한다고 해서 폼을 수정했는데 다시 또 다른 문제가 언급됐다. 경기 중에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 경기에 집중할 수 없는 상황이다”며 “앞서 다른 심판조에 맞춰 수정을 했고, 괜찮다고 해서 피칭을 했는데 다른 부분에서 스트레스를 받게 되니 구단 입장에서 안타깝다”고 입장을 설명했다.

이어 “심판진이 폼에 대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 루틴을 깨고 해야 하는 부분이고 투구에 집중해야 하는데 밸런스가 깨질 수밖에 없다. 타자와 싸워야 하는 데 집중을 하지 못하면서 산체스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심판진이 잘 못했다 잘했다가 아니라, 심판마다 다르게 가고 있어서 선수가 혼란이 오고 경기에 집중할 수 없다고 한다”며 “다른 리그에서는 문제가 안 됐던 폼인데 세 번 지적을 받았다. 처음부터 정확하게 했다면 맞춰서 했을 것이다. KBO에서 일몰적으로 정해지면 좋겠다. 선수 입장에서 스트레스가 심하다”고 호소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네이마르, 이강인과 바로 이별?

PSG에 바르샤 복귀 의사 전달

‘프랑스 명가’ 파리 생제르맹(PSG)으로 이적한 이강인과 화기애애한 동료애를 과시했던 ‘월드스타’ 네이마르가 구단에 FC바르셀로나(스페인)로 복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

ESPN은 8일(한국시간) “PSG의 네이마르가 이번 여름에 바르셀로나로 다시 합류하고 싶어 한다”라며 “다만 바르셀로나 역시 네이마르 계약을 둘러싸고 구단 내부의 논쟁이 있다”라고 전했다.

이 매체는 “바르셀로나 구단의 일부 사람들은 네이마르의 이적을 찬성하지만 사비 에르난데스 감독을 포함한 다른 사람들은 네이마르가 팀에 적합하지 않을 것으로 믿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구단 소식통들은 2017년 바르셀로나를 떠난 네이마르의 복귀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 않고 있지만 재정적으로 매우 어려운 거래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프랑스 레퀴프 역시 “네이마르가 지난 일요일에 구단 경영진에 이번 여름 PSG를 떠나고 싶다는 의사를 전달했다”고 전했다.

지난달 이강인이 PSG 유니폼을 입은 이후 팀에서 가장 친하게 지내는 선수로 네이마르가 떠오른



네이마르

만큼 그의 이적설은 국내 팬들에게도 깜짝 놀랄 소식이다.

네이마르는 지난 3일 부상에서 치러진 전북 현대와 쿠방플레이 시리즈 3차전에서 이강인과 골세리머니를 함께 하는 등 보기 좋은 모습을 자주 연출했다.

다만 네이마르의 바르셀로나 복귀를 가로막는 가장 큰 문제는 ‘돈’이다.

2017년 무려 2억2200만 유로(약 3200억원)의 천문학적 이적료로 PSG에 입단한 네이마르는 2021년 5월 재계약하면서 계약기간을 2025년으로 연장했다.

/연합뉴스

광주FC 뜨거운 질주...데이터도 순위권

K리그1 복귀 첫해 광주FC의 뜨거운 질주는 데이터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8일 K리그1 25라운드 종료 기준 부가 데이터를 발표했다.

지난해 K리그2에서 압도적인 1위를 달리면서 ‘우승팀’으로 1부 무대로 돌아온 광주는 25라운드까지 10승 7무 8패(승점 37)를 기록하면서 5위에 자리하고 있다. 4위 FC서울과 승점 1점 차, 3위 전북현대도 승점 3점차 안에 있다.

이정효표 ‘공격 축구’에 공수 모두 소화하는 ‘전천후 축구’로 승점을 쌓아가고 있는 광주 선수들은 쟁쟁한 타팀 선수들과 비교해도 밀리지 않은 활약을 선보였다.

올 시즌 환상적인 원발로 5골을 터트린 아사니는 박스 밖에서도 위력적인 슈팅을 선보이면서 눈길을 끌고 있다. 아사니가 박스 밖에서 날린 슈팅은 27개로 전체 3위다. 1위는 대구 세징야로 34개, 2위는 포항 오베르단으로 29개다.

활발한 움직임으로 올 시즌 이정효 감독이 기대주로 꼽았던 이희균도 데이터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이희균은 17차례 드리블에 성공하면서 26차례 드리블 성공을 이룬 제르소에 이어 전체 2위에 이름을 올렸다.

패스에서는 티모가 수준급 실력을 자랑하고 있다. 패스 성공 누적 순위에서 티모는 전체 5위를 차지했다.

1584차례 패스를 시도한 티모는 1443회 성공하면서 91.1%의 성공률을 보였다. 중앙지역 패스 성공 순위에서도 5위, 전진패스 4위에 자리한 티모는 황폐스에서는 서울 김주성에 이어 2위를 기록했다. 장거리 패스에서도 4위에 자리하면서 광주 빌드업의 중심이었다.

또 티모는 위험한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안전한 지역으로 공을 건어내는 ‘클리어’ 부문에서도 189차례로 5위에 올랐다.

티모 뒤에 자리한 ‘최후의 보루’ 김경민도 든든했다. 골키퍼 김경민은 30개의 공중볼을 처리하면서 이 부문 2위를 차지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